

2. 어린시절 (1928~1933)

1928년(7세) 4월 1일 나운영은 미동(漢洞)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창가(唱歌)를 배웠고 창가를 무척 좋아했다.

1929년(8세) 1월 25일 나운영의 나이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운영은 할머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위로를 받았다.

겨울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손으로 뽀뽀 언 손을 녹여 주시던 그 할머니마저 몇 달 후 세상을 떠나자 나운영은 많이 상심하여 의기소침해져 있었다. 더욱이 홀로 되신 어머니는 강하고 엄한 아버지의 노릇까지 하셔야했기에 나운영을 집 앞에 있는 전봇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엄하게 교육하셨다. 나운영은 친구들과 놀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꾸중 때문에 집안에서 하루 종일 양금을 치거나 하모니카를 불면서 긴긴 하루를 보내야만 했다.⁶⁾

그러던 어느 날 나운영은 예전처럼 사랑방에 몰래 들어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유성기(S.P.축음기)와 유성기관(S.P.)을 발견하게 된다. 불과 몇 장 밖에 안 되는 유성기관 중에서 그가 처음 들은 서양음악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 음악이었으니 그것이 바로 프란츠 샬크(Franz Schalk, 1863~1931)가 지휘한 베토벤의 「교향곡 제5번 '운명」이었다.

어린 나이에도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나운영은 감격했다. 생전 처음 교향곡을 들었기 때문이다. 스테레오도 아닌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S.P. 소리였지만 나운영은 그 음악에 사로잡혀 하루에도 여러 번 그 판이 다 헤어질 정도로 계속 들었다. 악보도 없었지만 보통학교를 다닐 때 줄곧 들어서인지 바이올린 파트, 첼로 파트, 더블 베이스 파트는 물론 팀파니 파트에 이르기까지 어느 파트라도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외우다시피 하였고 그러는 동안에 어느덧 작곡가가 될 꿈을 품게 되었다. 베토벤의 「운명」이 나운영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.⁷⁾

1930년(9세) 보통학교 3학년 때 나운영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철저한 청음(聽音)교육을 받게 된

6) '나의 어머니를 말한다' <꿈나라 1980년 12월호>

7) 수상집 4집 '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' 159쪽과 1986 KBS TV '11시에 만납시다' 인터뷰 내용

다.⁸⁾ 그때부터 나운영은 전교에서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학생으로 인정받았고, 학예회나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면 늘 학교대표로 노래를 불렀으며 음정 알아맞히기는 아예 나운영의 독무대였다.

선생님은 나운영의 음악적 소질을 일찍 발견하여 키워 주셨고 이때부터 나운영은 **짧막한 멜로디를 작곡**하기 시작했는데, 악기라고는 하모니카밖에 없었지만, 예를 들어 한글을 알면 저절로 글짓기가 되듯이, 비록 콩나물대가리 악보는 아니었지만 숫자로 된 하모니카 악보로 기악곡을 쓰기 시작하였다.

1931년(10세) 보통학교 4학년 때 구세군 악대 救世軍 樂隊 노방전도대 路傍傳道隊들이 브라스밴드로 찬송가를 연주하며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. 나운영은 군복을 입은 구세군 사관생도들의 모습과 처음 듣는 연주에 홀딱 반해 정신없이 뒤를 쫓아갔는데, 이를 계기로 결국 아현동에 있는 구세군 아현교회에 다니게 된다.

이것이 교회와의 첫 만남이었다. 나운영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연극과 음악예배를 구경하려고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갔는데,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 그 후로도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.



[사진 왼쪽부터 셋째형, 나운영, 여동생, 어머니, 둘째형, 큰형, 큰형수]

8) 월간음악춘추 1990년 9월호

나운영의 가정은 기독교 집안은 아니었다. 나운영의 아버지는 새문안교회 집사였다고 하는데, 일년 후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보아 군예빈(E.W.Koons) 목사가 교장으로 있는 경신학교에 근무하기 위해 마지못해 교회에 출석하였던 것 같고,⁹⁾ 나운영의 어머니는 불상佛像을 사랑방에 둘 정도였으니 분명 불교 신자였던 것 같다.

이런 가정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운영은 혼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, 세례를 받지도, 믿음이 좋은 편도 아니었지만, 오로지 음악이 좋아 음악과의 만남을 위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.

1932년(11세) 보통학교 5학년 때에는 제법 긴 기악곡의 멜로디를 작곡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작곡한 것이 동요나 가곡 형식이 아니라 200소절 이상 가는 긴 기악곡을 작곡했다. 물론 숫자로 된 하모니카 악보로서 멜로디만 쓴 것이었지만 그냥 무작정 쓴 것이 아니라 작곡이 무엇인지 느끼고 썼다고 하는데, 그것은 바로 베토벤의 「운명교향곡」을 통해 작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어렵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.

아버지로부터 배운 국악에 대한 조예와 베토벤의 「운명교향곡」을 통한 양악洋樂에 대한 열정이 이후 나운영의 음악세계를 이룩하게 하였고,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 강조한 ‘선토착화 후현대화’先土着化 後現代化의 바탕이 된 것이다.

9) 새문안85년사(1973,새문안교회) 126쪽을 보면 경신학교 교장이자 선교사인 군예빈(E.W.Koons) 목사가 목회하고 있음. 255쪽 1917년도 집사명단에 나원정,이상준,김인식,김형준,홍영후 이름이 실려 있으나 다음해부터는 집사명단에 나원정의 이름이 빠져 있음.